루마니아 선교편지

제 51 호 2016. 9. 6

모든 것 위에 뛰어 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소식 전해드립니다.

♣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소식

펠디와라 교회에서는 지난 6월에 8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고, 오랜만에 전교인이 관광버스를 타고 야외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28일에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2명의 청소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이들만 중요시한다는 어른들의 불만도 있어서 균형있는 목양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교회 모임 장소를 한 달 만에 비워달라던 주인이 다시 한 달의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장소를 찾던 중,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 경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펠디와라에 교회를 개척한 지 여러해가 지났는데, 이제는 여러모로 주일학교와 제자 훈련 및 성도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을 반드시 찾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뜨르너베니 교회도 파네 전도사의 헌신으로 열심히 기도 모임을 갖고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집회를 통해 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례자들과 가족들

펠디와라 성도들

♣ 브라쇼브(Brasov)주의 주일학교 소식

1. 브라쇼브주 어린이 총 전도 집회

루마니아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과 지원자들이 브라쇼브에 함께 모여 한 주간 세미나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을 한 뒤, 7월 16일~ 22일까지 총력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문 사역자들과 브라쇼브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교사 양성학교를 수료한 미래의 교사들이 각 각 팀을 이루어 일주일간 숙식을 하며 맡은 지역의 교회들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3,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며, 펠디와라 교회의 교사들은 다른 주에서 온 교사들과 함께 두 팀으로 나눠 하루에 3곳씩 6개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때는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 시끄럽고 정신없어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변할 것 같지 않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어서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모두 실감했습니다.

2. 새로 시작하는 '아리우슈드'(Ariusd)교회와 '이아러쉬'(Iaras)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

펠디와라 교회에서 여름 전도집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던 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 매주 화요일 주일학교를 열기로 했고, '이아러쉬' 교회도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역시 주일학교가 없어 매주 수요일 섬겨주고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 스스로 주일학교를 진행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군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3. 아라치(Araci) 교회의 주일학교와 토하누 베키교회

아라치 교회의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잘 훈련되어 지고 있어 감사하며, 이번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빠져 나와 세례를 받은 니꼴라에가 믿음으로 잘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토하누 베키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랐고 특히 음악에 달란트가 많은 고3인 데니사와 동생 고2인 노에미 자매는 일군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전도 집회 때 사역자가 부족하여 그 교회에서는 이 둘이서 전체 모임을 다 이끌어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라치 교회 아이들

새로 시작한 '아리우슈드' 교회 아이들

♣ 지도자 기도 모임- 이곳에서 17년을 지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도 많은데, 지도자 기도모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매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가족 소식과 기도제목

수진이는 끊임없는 시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뇌를 좀 쉬게 해 주는 것이 소원입니다. 9월 26-27일, 10월 초, 4개의 해부학 시험을 통과하면 잠시라도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진이는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또 한동에서 팀장으로 섬김을 배워가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진이는 8학년(학생 한 명)시작했고, 이번 달부터 여성호르몬 복용량을 증가했는데, 부작용 없이 필요한 작용만 하도록 뼈에 문제가 없이 키가 최대한 크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펠디와라 교회의 모임 장소를 속히 허락해 주시도록

2. 어린이 전도집회를 통해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꾸준히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3. 이번에 펠디와라 교회에서 세례받은 세례자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4. 새로 시작된 '아리우슈드' '이아러쉬' 교회의 주일학교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5. 수진이 시험, 예진이 키(만14세 131센티) 성장, 가족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

루마니아 선교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물 댄 동산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 (수진,경진,예진)선교사 올림